우리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安全點檢 業務"—대단히 重要하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協會 業務의 中樞的인 業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狀況 속에서 點檢을 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와 같은 組織團體가 왜 탄생되었으며 使命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國家와 國民에게 必要한, 또 要求되는 業務를 하고 있다. 따라서 國家에서 必要를 느끼지 않을 때, 더 좁게는 社員社에서 不必要하다고 판단할 때 우리 組織은 命을 다하고 만다. 그러기에 目的事業에 充實해야 하며 그 目的이 達成된 뒤에라도 제2의 跳躍을 위해서는 새로운 章을 계속 展開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10年이 넘도록 火災豫防 安全點檢을 해 왔다. 그러기에 적어도 이에 관한 한 先驅者的 역할을 하여 왔고 이 부문에서는 社會에 많은 貢獻도 하여 왔다. 또한 外部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認定하여 왔으며, 우리는 앞으로도 認定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는 各 特殊建物에 대하여 必然的으로 1年에 1회씩 點檢을 하여 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點檢을 했으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重要하게 여기지 않고 단지 點檢했다는 것만을 重要視하는 風潮가 생겨났다. 그렇게 된 데에는 點檢을 해야 할 物件이 매년 약 10%씩 增加하고 있는데 대하여 人力은 제자리 걸음을 하기 때문이라는 現實을 無視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人力을 늘릴 수도 없는 우리 立場에서는 結果는 確實하다. 點檢方法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이 구차스럽기만 한 實情을.

그러나 만약 앞으로 계속 이러한 狀態가 持續된다면 어떤 結果가 될까하는 것에 대해서는 難題 같지만 대부분은 나름대로 쉽게 그 解答을 풀고 있다. 어쨌든간에 그 問題는 各者에게 맡겨 생각하기로 하더라도 現在에서의 立場을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볼 일이다.

防火情報 時論을 통하여 누차 指摘했다시피 確實한 結論은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모두 같이 해야 깊은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事實이다.

點檢은 單純히 경험과 요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火災豫防에 관한 專門知識을 豊富하게 갖춘 專門人이 해야 한다는 事實을 點檢人들은 자주 느낄 것이다. 10年前과 달라 이제는 受檢者들이 상당한 專門知識을 갖춘 水準에 와 있기 때문이다.

여건이 어려워 짧은 時間에 많은 物件의 點檢을 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必要한 專門知識을 외면하고 點檢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調査하고 硏究하는 姿勢를 키워 제2 跳躍의 발판을 굳혀야겠다는 것이다.

近者에 와서 技術業務와 관련된 일을 推進하다 보면 "지금의 일도 어려운데…"라고 每事에 푸념이 쉽게 나오는데, 이러한 마음은 충분히 理解할 수 있으나 어려운 狀況에 처해 있는 立場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같다는 것도 이 機會에 다시 한번 强調하고 싶다. 제2의 跳躍의 발판없이는 組織의 生命延長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손톱 사이의 가시 보다는 염통이 重要하니, 염통 썩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를. *